

240 (10)

함께하는 과학기술 다가오는 신진한국

www.most.go.kr

DYNAMIC KOREA

MOST 과학기술부	보도자료 □□□□□□□□□□	보도시점	'05. 5. 17 석간부터		
		자료배포일	'05. 5. 16	매수	총 10 매
담당 담당	과학기술정책국	과장	강영철	02)2110-3760	
	종합기획과	서기관	권석민	02)2110-3761	

제 17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개최
- 미래사회에서 필요한 761개 기술과제 도출 등 -

- 제 17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2005년 5월 17일 오전 7시 30분 소공동 소재 롯데호텔에서 관계부처 장관을 중심으로 한 정부위원과 민간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.
- 이날 회의에서는 「과학기술예측조사('05~'30) 결과와 향후 추진방향」 등 총 7개 안건이 상정되어 참석 위원들간의 심도있는 토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었다.

- <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상정안건 >**
- ① 제 16회 회의결과 추진현황
 - ② 미래를 열어가는 국방과학기술(동영상)
 - ③ 우주개발중장기기본계획 수정안
 - ④ 다목적 실용위성 5호 개발계획
 - ⑤ 과학기술예측조사('05~'30) 결과와 향후 추진방향
 - ⑥ 제 2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
 - ⑦ 「이공계 전공자 공직진출 확대방안」 2005년도 추진실적

□ 특히 이날 토의된 안건 중 「과학기술예측조사('05~'30) 결과와 향후 추진방향」에서는 '우주와 지구' 등 8개 분야에 걸쳐 총 761개의 미래 기술과제를 제시하였다.

□ 이번에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 7개 안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.

(1) 제 16회 회의결과 추진현황

▶ '04.12.21일에 개최된 제 16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결정된 과학기술투자재원 확충, 중소기업 혁신 지원,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연구기관 설치 등의 후속조치사항의 추진실적과 현황을 보고

(2) 미래를 열어가는 국방과학기술(동영상)

▶ 국방연구개발사업 수행성과를 널리 알리고 국가연구개발체계와 국방연구개발체계와의 연계·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, 국방연구개발의 연혁·주요성과·투자효과와 미래비전 등을 제시

(3) 우주개발중장기기본계획 수정안

▶ 위성개발의 국가 전략적·공공적 수요와 현실성을 고려하여 당초 2015년까지 20기 발사에서 2010년까지 13기(개발 착수 4기 포함) 발사로 변경하고, 다목적 실용위성 2호 발사시기를 2004년에서 2005년으로, 5호 발사시기를 2010년에서 2008년으로 조정

▶ 외국과의 기술협력 추진상황을 고려하여 소형위성 발사체 개발 일정을 당초 2005년에서 2007년으로 조정

(4) 다목적 실용위성 5호 개발계획

▶ 한반도의 전천후 지상·해양 관측을 위한 저궤도 실용위성을 개발하기 위해 2005년 5월에서 2009년 6월까지 총 2,480억원을 투자하여 연구개발을 추진할 예정

(5) 과학기술예측조사('05~'30) 주요결과와 향후 추진방향

- ▶ 미래사회의 변화를 전망하고 니즈(needs)를 도출하며, 미래에 필요한 기술과제들('우주와 지구' 등 8대 분야 총 761개)을 발굴하고, 이러한 기술과제들이 실현될 때 미래에 도래할 사회의 변화된 모습을 체계적으로 제시
- ▶ 과학기술예측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미래 국가유망기술 분야를 도출할 예정

(6) 제 2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('05~'07)

- ▶ 지방과학기술혁신을 위해 지역과학기술혁신로드맵(RTRM)에 기초한 전략·특화기술개발 등 7개 중점과제에 따른 15개 세부과제를 추진함으로써 지역의 과학기술혁신역량 강화, 지방 R&D 투자의 효율성 제고, 지방과학기술의 성과 확산시책을 내실있게 추진

(7) 「이공계 전공자 공직진출 확대방안」 2005년도 추진실적

- ▶ 정부전체 4급이상 기술직·이공계 전공자 비율이 '03년 26.6%에서 '04년 28.9%로 증가하였고, 5급 신규채용 중 기술직 비율도 확대
- ▶ 6급이하 기술직공무원 인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, 기술직 공무원의 정책관리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도 강화

□ 앞으로 과학기술혁신본부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사무국으로서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하여 이번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심의·확정된 시책을 지속적으로 점검·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.

※ 문의 : (총괄) 과학기술부 종합기획과 권석민 서기관(02-2110-3761)

◆ **안전별 담당자 연락처**

① **제 16회 회의결과 추진현황**

- 과학기술부 종합기획과 권석민 서기관(02-2110-3761)

② **미래를 열어가는 국방과학기술(동영상)**

- 국방부 연구개발기획담당관실 손현영 사무관(02-748-5413)

③ **우주개발중장기기본계획 수정안**

- 과학기술부 우주기술개발과 김시선 서기관(031-436-8609)

④ **다목적 실용위성 5호 개발계획**

- 과학기술부 우주기술개발과 민병희 사무관(031-436-8609)

⑤ **과학기술예측조사('05~'30) 주요결과와 향후 추진방향**

- 과학기술부 과학기술정보과 신준호 서기관(02-2110-3776)

⑥ **제 2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('05~'07)**

- 과학기술부 기술혁신제도과 최규현 서기관(02-2110-3783)

⑦ **「이공계 전공자 공직진출 확대방안」 2005년도 추진실적**

- 중앙인사위원회 균형인사과 안현식 사무관(02-751-1203)

(1) 「미래를 열어가는 국방과학기술」

- 국방부는 그 동안의 국방연구개발 성과 등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「미래를 열어가는 국방과학기술」라는 제목의 동영상 제작하였다.
- 주요 내용은 국방연구개발 체제와 연혁, 주요 개발성과, 국방연구개발 투자의 효과 등이며 특히, 현재의 기술수준을 2010년도에는 선진국권에 진입시키고 2020년까지는 미래 첨단 무기체계를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한다는 내용의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있다.
- 이와 같은 국방연구개발 성과 소개를 통해 국방분야 연구개발의 폐쇄적 이미지를 불식하고, 국가연구개발체제와 국방연구개발체제의 상호 연계·협력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관련부처간 공감대 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.

(2) 우주개발중장기기본계획 수정

□ 「우주개발중장기기본계획 수정(안)」에서는 외국과의 우주기술협력 등 국내·외 우주개발사업의 여건변화를 감안하여 국가우주개발사업의 목표와 예산규모 등을 현실성있게 재조정하였다.

□ 동 안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.

- 우주개발중장기기본계획을 ‘장기계획’과 ‘중기계획’(향후 5년)으로 구분하여 ‘장기계획’에서는 우주개발의 장기적 발전방향과 목표를 제시하고, ‘중기계획’에서는 장기계획을 기반으로 5년 단위의 구체적인 우주개발 목표와 계획을 제시함으로써 계획의 유연성을 확보

※ 총 투자규모는 중기계획 중심으로 검토

· 2006년부터 2010년까지 향후 5년간 1조 3,900여억원 소요추정

- 과학기술위성 2호, 소형위성발사체 개발 및 우주센터 건설 완료기간을 2005년에서 2007년으로 조정

- 다목적실용위성 개발계획을 국가적 수요를 감안하여 일부 조정
 - 2호 발사시기를 당초 2004년에서 2005년으로 조정
 - 5호 발사시기를 당초 2010년에서 2008년으로 조정

□ 지난 5월 3일 우주개발진흥법의 국회 본회의 의결에 이어, 금번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우주개발중장기기본계획 수정(안)이 확정됨에 따라 국가 우주개발계획의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.

(3) 다목적실용위성 5호 개발계획

- 다목적실용위성 5호 개발계획은 전천후로 한반도의 지상·해양 등 지구정보를 관측할 수 있는 영상레이더(SAR)가 탑재된 저궤도 실용 위성을 개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.

- 2008년 12월말 발사목표로 하여 2005년 5월부터 2009년 6월까지 총 2,480억원을 투입하여 개발될 다목적실용위성 5호는
 - 위성의 독자개발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시스템 설계와 본체 개발 등은 국내주도로 개발하며, 아직 국내에서 확보하지 못한 영상레이더 탑재체는 해외협력을 통해 개발할 예정이다.
 - 또한 다목적실용위성 3호와 연계하여 개발함으로써 기존의 인력·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, 민간 우주산업체를 포함한 국내 가용자원을 활용하여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.

- 다목적실용위성 5호가 성공적으로 개발되면
 - 지상 및 환경관측, 농작물 작황 및 산불피해 분석 등에 필요한 위성 영상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함으로써 국가재난 관리업무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.

(4) 「과학기술예측조사('05~'30)」 결과와 향후 추진방향

□ 「과학기술예측조사('05~'30)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.

○ 첫째, 미래사회의 변화를 전망하고, 이에 따라 우리 사회의 니즈(needs)가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를 파악하였다.

- 향후 국내의 사회전반에 걸쳐 예상되는 변화를 ‘물’, ‘인구성장’ 등 15개 대주제로 분류하여 전망하고, 이를 토대로 미래 우리사회의 니즈를 도출하였다.

○ 둘째, 미래 우리사회의 니즈 해결에 필요할 것으로 예견되는 기술과제로 ‘우주와 지구’ 등 8개 분야에 걸쳐 총 761개를 도출하였다.

- 아울러, 761개 기술과제들에 대한 국내외의 실현시기, 중요도, 우리의 연구개발수준, 기술과제 실현의 장애요인 등 9개 항목에 대한 전문가의견(델파이조사) 조사내용도 포함하고 있다.

○ 셋째, 보건·의료, 교육, 노동, 안전분야 등에서 과학기술의 변화와 발전이 가져올 미래사회의 변화모습을 몇 개의 시나리오로 구분하여 전망하였다.

□ 정부는 앞으로 관계부처와 각계의 전문가로 「미래 국가 유망기술 위원회」(가칭)를 구성하여 동 조사결과로부터 미래 국가유망기술 분야*를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중기 R&D정책방향을 수립할 계획이다.

* 미래 유망기술 분야는 향후 10년 이후('15~'30)의 국가성장동력 창출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등의 원천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술 분야

(5) 제2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

- 「제2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」은 「과학기술기본법」 제8조에 의해 '05~'07년을 시행기간으로 수립하였으며
 - 범부처 과학기술관련 정책과 시·도별 과학기술계획을 종합하고 체계화하여 지방과학기술진흥의 기본 틀과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.
- 동 계획은 i. 지역과학기술 혁신역량 강화, ii. 지방 과학기술 사업간 연계를 통한 지방 R&D 투자의 효율성 제고, iii. 지방 과학기술의 성과확산 등 3대 기본방향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7개 중점과제를 추진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.
 - (1) 지역과학기술혁신 로드맵(RTRM)에 기초한 전략·특화기술개발
 - (2) 핵심인력 양성과 산·학·연 협력체제 구축
 - (3) 기존 거점의 연계체제 구축과 지역혁신거점의 육성
 - (4) 지역과학기술정보시스템의 통합·연계
 - (5) 「지자체 주도-중앙정부 조정」의 사업추진체제 확립
 - (6) 연구개발결과의 성과확산과 기술사업화 촉진
 - (7) 지역 과학기술문화의 저변 확대
- 또한 정부는 계획기간 중 국가 R&D재원의 지방배분비율을 '04년 32.1%에서 '07년 40%까지 확대하여 지방주도의 과학기술혁신과 균형발전을 정립해 나가기로 하였다.
- 동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게 되면 지역 전략·특화 기술의 체계적인 개발을 통해 지역기술혁신 토대가 마련되고 지자체 주도의 사업추진 체계가 확립되어 지방 R&D사업의 투자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.

(6) 이공계 전공자 공직진출 확대방안 '05년도 추진실적

- 「이공계 전공자 공직진출 확대방안」의 2005년도 주요 추진현황은 다음과 같다.
- 첫째, 「4급이상 기술직·이공계 임용확대 5개년 계획」을 추진한 결과 '04년 12월말 현재 정부전체 4급이상 등 정책결정 직위에 대한 기술직·이공계 비율은 28.9%로 '03년도(26.6%)에 비해 2.3%p 증가하였다.
 - 특히, 3급이상 행정직과 기술직은 하나로 완전히 통합하고, 4급은 서기관과 기술서기관으로 통합하도록 공무원임용령을 개정중에 있다.
- 둘째, 기술직 채용인원을 확대하고 인사제도·운영을 개선함으로써 '04년 12월말 현재 5급 신규채용 중 기술직 채용비율은 50.1%로 '04년도 기술직 채용목표 비율(26.8%)을 23.3%p 초과 달성하였다.
- 셋째, 6급이하 실무 기술직의 정원규모를 확대하고 민간경력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등 6급이하 기술직 공무원의 인사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.
- 넷째, 과학기술분야 정책관리능력 제고를 위한 대학원 단기위탁 교육 실시 등 기술직공무원의 정책관리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을 강화하였다.
- 중앙인사위원회는 앞으로도 4급 직위 대부분을 행정·기술 복수 직위로 전환하고, 기술직 직군·직렬 분류체계를 개편하는 등 이공계 출신의 공직진출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.